

중소형주

추석 이후 코스닥의 향방은

미래산업/미드스몰캡. 나승두 / nsdoo@sk.com / 3773-8891

Signal: 추석 연휴 연말까지, 구조적으로 대형주에 유리한 환경

Key: 코스닥 수익률 더 좋았던 2005년, 2011년, 2017년에 나타난 공통점

Step: 2026년, 완벽히 조건 충족했다 보기 어렵지만 가능성 남아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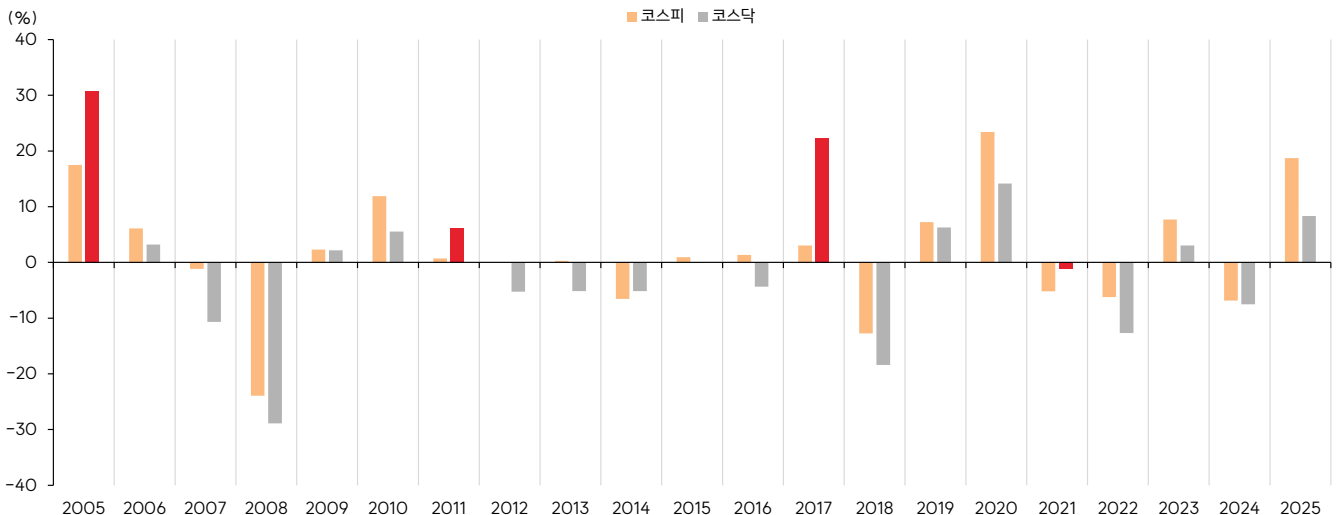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코스닥 어땠나

추석 이후 연말까지의 국내 증시 흐름은 코스닥보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이후 지난 20여년간 추석 이후 연말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는 다섯 번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의 시장 흐름은 구조적으로 대형주에 유리한 환경이다. 12월 말 대주주 개인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코스닥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배당과 더불어 연말 원도드레싱 움직임으로 인해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배당 대형주 및 코스피 종목들에 집중되곤 한다. 따라서 코스닥의 계절적 우위는 연말이 아닌 이듬해 1월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코스닥의 수익률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2005년(+13%pt)과 2011년(+5.5%pt), 2017년(+19.3%pt)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대형주의 공백이다. 2005년은 외국인의 대형주 순매도, 2011년은 유럽발 금융 위기로 인한 조선/화학 섹터 이익 전망치 하향, 2017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후 차익 실현 및 피로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확실한 테마 형성이다. 2005년은 줄기세포 중심의 바이오 테마, 2011년은 모바일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테마, 2017년은 셀트리온 3형제 및 신라젠 주도의 바이오 테마가 형성되었던 시기다. 셋째, 수급의 역전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유의미한 순매수가 이어질 때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올해는 다를까?

그렇다면 2026년 현재는 어떠한 환경일까? 첫째, 대형주 공백에 관한 조건은 절반만 충족된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후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동향이 앞으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는 조금씩 형성되는 중이다. 코스닥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은 약하지만, 반도체 장비 및 로봇 테마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형성되는 중이다. 셋째, 수급 요건은 아직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기관 순매수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끈을 놓기 어렵다. 추석 이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및 정책 동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코스피 & 코스닥 수익률 비교



자료: Quantwise, SK 증권

COMMENT

COMPLIANCE NOTICE

작성자(나승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